



New China Life Insurance 상장, 아시아시장 회복력 시험대로 작용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New China Life Insurance¹⁾ 기업공개 성공여부는 아시아 금융시장, 특히 홍콩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타진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.

-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직후 8월 둘째 주 동안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77억 달러의 자금 인출이 발생함.
 - EPFR(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) Global and Citigroup 자료에 따르면, 이는 주간 인출 규모로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함.
 -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48억 달러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주식시장에서 29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인출됨.
-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였고, 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도 함께 폭락함.
 - 홍콩 Hang Seng지수는 8월 11일 현재 연초대비 15% 하락하였고, 상하이 주가종합지수는 연초대비 8.1% 하락함.
- 이러한 가운데 New China Life Insurance는 8월 1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신청하였으며, 9월 말 이전에 홍콩증권거래소의 허가를 받아 늦어도 10월에는 상장할 계획임.

■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기업공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공개 자체가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랐음.

- 비은행계 대부업체인 L&T Finance Holdings는 인도에서 8월 16일에 상장하였으나,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 주가를 하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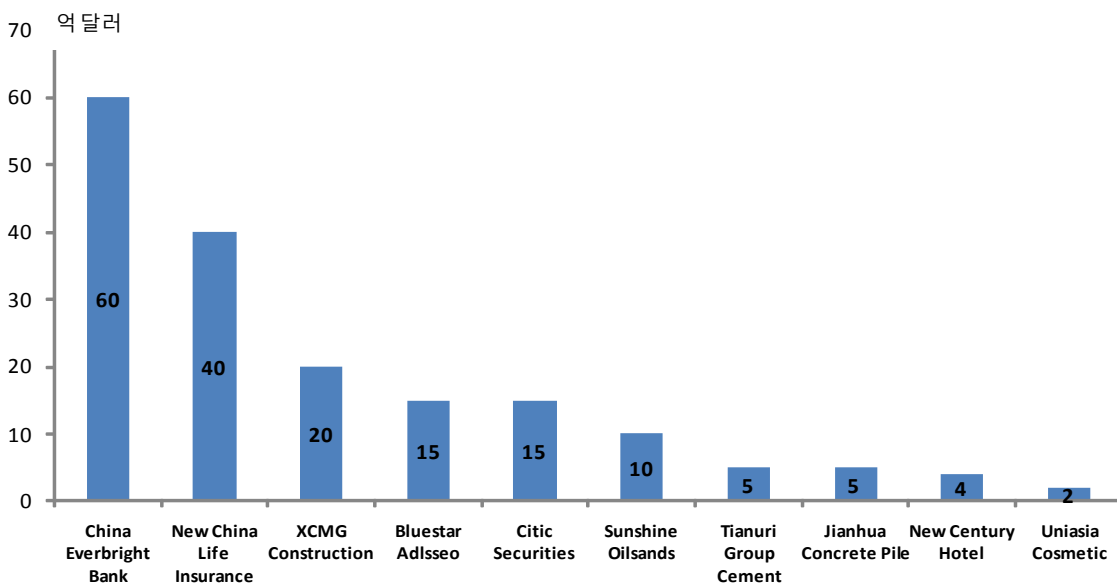
1) New China Life Insurance는 2010년 중국보험시장에서 143억 달러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여 China Life, Ping An Insurance에 이어 8.9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. New China Life Insurance의 수입보험료는 2005~2010년 동안 연평균 40% 증가함.

● China Shipping Nauticgreen Holdings, Beijing Jingneng Clean Energy는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하였고, 6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는 China Everbright Bank도 상장 시기를 관망하기로 함.

■ 그러나 향후 2개월 동안 홍콩에서 총 160억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공개들이 예정되어 있어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금융시장의 회복 전망은 밝은 편임.

- 전문가들은 아시아 금융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밝은데다 단기 급락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어왔기 때문에 New China Life Insurance의 기업공개는 성공할 것으로 전망함.
 - Royal Bank of Scotland는 아시아 금융시장이 2003년 사스(SARS)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위기 시에도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주장함.
- 선천 증시에 상장된 XCMG 건설회사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15~2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, 그리고 Bluestar Adisseo Nutrition Group은 15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.

〈그림 1〉 2011년 10월 말 이전까지로 예정된 홍콩 주식시장 주요 기업공개



자료: Wall Street Journal.

(Wall Street Journal 8/11, 8/16, 8/17)